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제주대학교 여학생을 중심으로 -

김 두 화\* · 김경순\*\*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요약 및 제언 |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참고 문헌       |
| III. 결과 분석    | Abstract    |

## I. 머리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이 점차 학내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제주 대학만 하더라도 캠퍼스내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성관계, 화장실 천장을 통한 여성의 성 훔쳐보기, 동아리 방이나 학과사무실을 통한 성관계 등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고 있다.

학내 성폭력이란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행위, 즉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현혜순, 2000). 성적 행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성적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혀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성별, 나이, 직위 등 복합적인 권력관계를 보이는 교수나 선배에 의해 피해가 전체 발생율의 대부분(83.4%)을 차지하고 있다(현혜순, 2000).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은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간사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습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내 성폭력의 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대학의 공동체 문화, 즉 공동체 내의 나이나 지위에 의한 권력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단순한 '성적인 문제' 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에 민감하게 닿아있다. 실제로, 대학내 성폭력의 많은 경우는 선배, 교수, 강사, 조교 등 나이나 직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의해 일어난다. 또한 대학사회가 이러한 다양한 권력에 민감하지 못한 만큼, 이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발언하지 못한 채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교수에 의한 피해에서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성폭력에 대해 '거부사'를 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불이익의 문제로 발언하지 못한 채 전전공공하게 된다. 또한 과나 동아리 선배 등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에서도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공동체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워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떠나거나 가해자가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 고민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내 성폭력은 조직내의 위계와 권위,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의식과 남녀평등에 둔감한 분위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94%가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고, 여성의 스트레스 1위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대에서 실시한 '학내 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성폭력을 당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친구가 44%, 후배가 3% 등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장소로는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뒷풀이 장소 39%, M.T야유회 19%, 하숙방 3%, 식당 4%, 강의실 2%, 복도 3%, 학내 한적한 곳 4%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이 어려운 실정이다(현혜순, 2000 재인용).

대학시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며,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입시의 굴레 속에서 통제되어진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 관련된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극적인 경험들은 심리적인 혼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즉 혼전 성관계, 원하지 않는 임신, 인공 임신중절, 성병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당면하는 시기 중의 하나이다(남미애, 2000).

대학은 교육의 장으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과나 동아리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

가 형성되게 하는 삶의 주요한 터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 누구로부터 어떤 유형의 성희롱 · 성폭력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01. 6. 4~7까지 실시되었으며, 각 학부(과)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표본 선정방법은 균등한 표집을 유지하기 위해 학과별 재학생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비울층화무선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였으며, 2001. 5. 1 기준하여 재학 중인 여학생 4,509명의 약 15%인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27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조사대상 여학생의 86.5%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대학 및 학년별 응답자수와 재학생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및 학년별 응답자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응답자수 (응답자율)	168 (26.7)	57 (9.1)	111 (17.6)	49 (7.8)	27 (4.3)	40 (6.4)	96 (15.3)	67 (10.7)	14 (2.2)	175 (27.9)	156 (24.9)	148 (23.6)	148 (23.6)	627 (100.0)
재학생수 (재학생 비율)	1,114 (24.7)	433 (9.6)	754 (16.7)	419 (9.3)	152 (3.4)	203 (4.5)	846 (18.8)	486 (10.8)	102 (2.3)	1,254 (27.8)	1,177 (26.1)	1,070 (23.7)	1,008 (22.4)	4,509 (100.0)

###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대학생의 성의식 조사, 이성간 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 성상담 요구도 조사 등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들의 설문내용을 참고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1) 가족사항
- 2) 일반적인 성희롱 · 성폭력 유형과 원인

- 3) 대학입학 후 성희롱 · 성폭력 경험시기, 장소와 이유
- 4) 대학입학 후 성희롱 ·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 5) 대학입학 후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 대처하지 못한 이유, 반응, 감정과 느낌, 후유증
- 6) 성희롱 · 성폭력 경험 후 대처방법과 고민스러웠던 점
- 7) 성에 대한 지식 습득처, 교육시기와 고민 해소의 대상
- 8) 성에 대한 가치관
- 9) 대학에서 성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이상과 같이 9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학년별로 응답 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Ⅲ. 결과 분석

#### 1. 가족사항

##### 1) 학생의 거주상태

학생의 거주상태는 <표 1-1>과 같다. '부모와 함께 거주' 하는 학생이 67.5%, '하숙이나 자취' 하는 학생이 21.9%, '기혼한 자매와 거주' 하는 학생이 5.1%이며, 이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 하는 학생인 경우 해양대(82.5%), 농과대(77.8%), '하숙이나 자취' 하는 학생은 의과대(28.6%), 자연대(25.0%), '기혼한 자매와 거주' 하는 학생은 법정대(8.8%), 공과대(7.5%) 순로 나타났다.

<표 1-1> 학생의 거주상태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부모와 거주	120 (71.4)	33 (57.9)	74 (66.7)	33 (67.3)	21 (77.8)	33 (82.5)	60 (62.5)	43 (64.2)	8 (57.1)	110 (62.9)	107 (68.6)	106 (71.6)	100 (67.6)	423 (67.5)
기혼자매와 거주	7 (4.2)	5 (8.8)	6 (5.4)		1 (3.7)	2 (5.0)	5 (5.2)	5 (7.5)	1 (7.1)	8 (4.6)	8 (5.1)	6 (4.1)	10 (6.8)	32 (5.1)
친척과 거주	1 (0.6)	4 (7.0)	7 (6.3)	3 (6.1)		2 (5.0)	4 (4.2)	2 (3.0)	1 (7.1)	12 (6.9)	5 (3.2)	4 (2.7)	3 (2.0)	24 (3.8)
하숙 / 자취	39 (23.2)	14 (24.6)	22 (19.8)	11 (22.4)	5 (18.5)	2 (5.0)	24 (25.0)	16 (23.9)	4 (28.6)	42 (24.0)	35 (22.4)	29 (19.6)	31 (20.9)	137 (21.9)

구분 거주상태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숙사		1 (1.8)				1 (2.5)		1 (1.5)		1 (0.6)	1 (0.6)		1 (0.7)	3 (0.5)
기타	1 (0.6)		1 (0.9)	2 (4.1)			3 (3.1)			2 (1.1)		2 (1.4)	3 (2.0)	7 (1.1)
무응답			1 (0.9)									1 (0.7)		1 (0.2)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2)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가 90.1%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만 계신 경우'가 7.2%, '아버지만 계신 경우'가 1.8%, '양친 모두 안계신 경우'의 학생도 0.8%(105명)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분 생존여부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양친 있음	152 (90.5)	52 (91.2)	96 (86.5)	47 (95.9)	25 (92.6)	36 (90.0)	90 (93.8)	56 (83.6)	12 (85.7)	152 (86.9)	142 (91.0)	137 (92.6)	134 (90.5)	565 (90.1)
부친 있음	3 (1.8)	2 (3.5)	2 (1.8)			1 (2.5)	1 (1.0)	1 (1.5)	1 (7.1)	9 (5.1)			2 (1.4)	11 (1.8)
모친 있음	12 (7.1)	2 (3.5)	12 (10.8)	2 (4.1)	2 (7.4)	3 (7.5)	5 (5.2)	8 (11.9)		12 (6.9)	12 (7.7)	9 (6.1)	12 (8.1)	45 (7.2)
양친 없음	1 (0.6)	1 (1.8)	1 (0.9)					2 (3.0)		1 (0.6)	2 (1.3)	2 (1.4)		5 (0.8)
무응답									1 (7.1)	1 (0.6)				1 (0.2)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3) 부모의 부부관계

학생 부모의 부부관계는 <표 1-3>과 같이 '매우 화목'하다는 반응이 37.6%, '다소 화목'하다는 30.0%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소 불편'하다는와 '매우 불편'하다는 반응에도 각각 3.8%, 2.6%의 반

응을 보이고 있다.

〈표 1-3〉 부모의 부부관계

〈단위 : 명(%)〉

구분 관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매우 화목	54 (32.1)	23 (40.4)	46 (41.4)	16 (32.7)	15 (55.6)	10 (25.0)	40 (41.7)	26 (38.8)	6 (42.9)	59 (33.7)	61 (39.1)	62 (41.9)	54 (36.5)	236 (37.6)
다소 화목	49 (29.2)	16 (28.1)	30 (27.0)	17 (34.7)	9 (33.3)	10 (25.0)	36 (37.5)	19 (28.4)	3 (21.4)	53 (30.3)	51 (32.7)	41 (27.7)	43 (29.1)	188 (30.0)
보통이다	47 (28.0)	11 (19.3)	24 (21.6)	10 (20.4)	3 (11.1)	14 (35.0)	15 (15.6)	11 (16.4)	2 (14.3)	44 (25.1)	30 (19.2)	26 (17.6)	37 (25.0)	137 (21.9)
다소 불편	7 (4.2)	3 (5.3)	4 (3.6)	2 (4.1)		2 (5.0)	1 (1.0)	3 (4.5)	2 (14.3)	6 (3.4)	4 (2.6)	8 (5.4)	6 (4.1)	24 (3.8)
매우 불편	4 (2.4)	2 (3.5)	2 (1.8)	2 (4.1)		1 (2.5)	2 (2.1)	3 (4.5)		3 (1.7)	4 (2.6)	5 (3.4)	4 (2.7)	16 (2.6)
무응답	7 (4.2)	2 (3.5)	5 (4.5)	2 (4.1)		3 (7.5)	2 (2.1)	5 (7.5)	1 (7.1)	10 (5.7)	6 (3.8)	6 (4.1)	4 (2.7)	26 (4.1)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4)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친밀하다'는 반응이 37.0%, '매우 친밀하다'가 36.7%, '보통이다'가 2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관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매우 친밀	55 (32.7)	23 (40.4)	46 (41.4)	15 (30.6)	11 (40.7)	13 (32.5)	35 (36.5)	27 (40.3)	5 (35.7)	70 (40.0)	54 (34.6)	59 (39.9)	47 (31.8)	230 (36.7)
다소 친밀	65 (38.7)	20 (35.1)	37 (33.3)	17 (34.7)	13 (48.1)	15 (37.5)	41 (42.7)	22 (32.8)	3 (21.4)	53 (30.3)	63 (40.4)	58 (39.2)	58 (39.2)	232 (37.0)
보통이다	42 (25.0)	10 (17.5)	19 (17.1)	16 (32.7)	2 (7.4)	10 (25.0)	18 (18.8)	16 (23.9)	4 (28.6)	44 (25.1)	30 (19.2)	25 (16.9)	37 (25.0)	136 (21.7)
친밀하지 않은 편	5 (3.0)	2 (3.5)	3 (2.7)	1 (2.0)	1 (3.7)	2 (5.0)	1 (1.0)	2 (3.0)	1 (7.1)	5 (2.9)	6 (3.8)	4 (2.7)	3 (2.0)	18 (2.9)
전혀 친밀하지 않음	1 (0.6)	1 (1.8)	3 (2.7)				1 (1.0)				2 (1.3)	1 (0.7)	3 (2.0)	6 (1.0)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응답		1 (1.8)	3 (2.7)						1 (7.1)	3 (1.7)	1 (0.6)	1 (0.7)		5 (0.8)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5) 부모의 월 수입

부모의 월 수입을 보면, <표 1-5>와 같다. '101~200만원' 이 39.7%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201~300만원' 이 23.0%, '100만원 이하' 가 14.8% 순으로 대학 및 학년별로는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5> 부모의 월 수입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00만원 이하	23 (13.7)	8 (14.0)	17 (15.3)	7 (14.3)	5 (18.5)	5 (12.5)	13 (13.5)	15 (22.4)		29 (16.6)	23 (14.7)	14 (9.5)	27 (18.2)	93 (14.8)
101~200만원	68 (40.5)	23 (40.4)	45 (40.5)	24 (49.0)	7 (25.9)	14 (35.0)	36 (37.5)	26 (38.8)	7 (50.0)	66 (37.7)	59 (37.8)	55 (37.2)	69 (46.6)	249 (39.7)
201~300만원	38 (22.6)	12 (21.1)	25 (22.5)	8 (16.3)	5 (18.5)	12 (30.0)	25 (26.0)	16 (23.9)	3 (21.4)	41 (23.4)	38 (24.4)	40 (27.0)	25 (16.9)	144 (23.0)
300만원 이상	16 (9.5)	8 (14.0)	16 (14.4)	4 (8.2)	5 (18.5)	5 (12.5)	12 (12.5)	4 (6.0)	1 (7.1)	18 (10.3)	18 (11.5)	21 (14.2)	14 (9.5)	71 (11.3)
무응답	23 (13.7)	6 (10.5)	8 (7.2)	6 (12.2)	5 (18.5)	4 (10.0)	10 (10.4)	6 (9.0)	3 (21.4)	21 (12.0)	18 (11.5)	18 (12.2)	13 (8.8)	70 (11.2)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2. 일반적인 성희롱 · 성폭력 유형과 원인

1) 성희롱 · 성폭력 경험 유형

성희롱 · 성폭력 경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불쾌한 음담패설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언어적 행위' 가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뚱어지게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신체적 행위(12.7%)',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11.6%)', '모임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11.0%)',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행위(8.2%)', '버스, 극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6.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5.8%)',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행위(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응한 학생은 627명이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여러 유형에 걸쳐 1,725명이 중복으로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1~3가지 유형의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경우'를 경험한 학생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별로 고학년(3~4학년)과 저학년(1~2)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는 3~4학년에 비해 1~2학년 학생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성희롱·성폭력 경험 유형

(단위 : 명(%))

구분 유형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22 (4.9)	13 (7.3)	19 (6.2)	6 (6.4)	2 (4.4)	6 (4.4)	20 (6.8)	10 (5.0)		23 (5.8)	25 (5.6)	22 (4.8)	26 (6.1)	96 (5.6)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만지는 행위	23 (5.1)	8 (4.5)	19 (6.2)	2 (2.1)	4 (8.9)	8 (5.8)	17 (5.8)	10 (5.0)	2 (3.7)	26 (6.6)	24 (5.4)	21 (4.6)	21 (5.0)	92 (5.3)
버스, 극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불쾌한 신체접촉	34 (7.5)	12 (6.7)	20 (6.6)	6 (6.4)	6 (13.3)	9 (6.6)	17 (5.8)	13 (6.5)	1 (3.3)	28 (7.1)	33 (7.4)	28 (6.1)	29 (6.8)	118 (6.8)
키 스 강 요	7 (1.5)	4 (2.2)	4 (1.3)	2 (2.1)	1 (2.2)	3 (2.2)	8 (2.7)	4 (2.0)	1 (3.3)	11 (2.8)	5 (1.1)	9 (2.0)	9 (2.1)	34 (2.0)
강 간	1 (0.2)	1 (0.6)	1 (0.3)				1 (0.3)			1 (0.3)		1 (0.2)	2 (0.5)	4 (0.2)
운 간	1 (0.2)		1 (0.3)			1 (0.7)	2 (0.7)			3 (0.8)		1 (0.2)	1 (0.2)	5 (0.3)
성 적 가 혹	5 (1.1)	2 (1.1)	4 (1.3)			2 (1.5)	2 (0.7)	1 (0.5)		3 (0.8)	3 (0.7)	6 (1.3)	3 (0.7)	15 (0.9)
음담패설, 음탕하고 상스러운 내용 이야기	65 (14.3)	29 (16.3)	42 (13.8)	19 (20.2)	7 (15.6)	18 (13.1)	38 (12.9)	28 (14.0)	6 (20.0)	53 (13.4)	67 (15.0)	72 (15.7)	58 (13.7)	250 (14.5)
외도에 대한 성적인 비 유 나 평 가	50 (11.0)	18 (10.1)	36 (11.8)	12 (12.8)	4 (8.9)	20 (14.6)	33 (11.2)	26 (13.0)	3 (10.0)	44 (11.1)	50 (11.2)	45 (9.8)	61 (14.4)	200 (11.6)
성적관계를 묻거나 성 정보 의도적인 유포	17 (3.8)	5 (2.8)	17 (5.6)	6 (6.4)	3 (6.7)	4 (2.9)	15 (5.1)	8 (4.0)	2 (6.7)	18 (4.6)	15 (3.4)	24 (5.2)	20 (4.7)	77 (4.5)



구분 유형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적관계 강요 또는 회유	7 (1.5)	2 (1.1)	5 (1.6)				5 (1.7)	6 (3.0)	1 (3.3)	8 (2.0)	2 (0.4)	10 (2.2)	6 (1.4)	26 (1.5)
데이트 강요	27 (6.0)	11 (6.2)	12 (3.9)	4 (4.3)	2 (4.4)	6 (4.4)	13 (4.4)	9 (4.5)	1 (3.3)	21 (5.3)	25 (5.6)	21 (4.6)	18 (4.2)	85 (4.9)
성적요구 거절시 손해에 대한 위협	2 (0.4)	2 (1.1)	6 (2.0)				2 (0.7)			2 (0.5)	2 (0.4)	5 (1.1)	3 (0.7)	12 (0.7)
뚱어지게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62 (13.7)	22 (12.4)	40 (13.1)	14 (14.9)	5 (11.1)	17 (12.4)	32 (10.8)	26 (13.0)	3 (10.0)	48 (12.2)	63 (14.1)	57 (12.4)	51 (12.0)	219 (12.7)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행위	37 (8.2)	13 (7.3)	25 (8.2)	8 (8.5)	4 (8.9)	14 (10.2)	27 (9.2)	14 (7.0)	1 (3.3)	28 (7.1)	44 (9.9)	38 (8.3)	32 (7.5)	142 (8.2)
음란사진, 그림, 낙시, 출판물 보임	25 (5.5)	10 (5.6)	15 (4.9)	4 (4.3)	2 (4.4)	6 (4.4)	23 (7.8)	13 (6.5)	2 (6.7)	20 (5.1)	28 (6.3)	32 (7.0)	20 (4.7)	100 (5.8)
성과 관련된 신체의 특정부위 노출, 또는 만지게 하는 행위	7 (1.5)	3 (1.7)	2 (0.7)			3 (2.2)	5 (1.7)	4 (2.0)	1 (3.3)	8 (2.0)	5 (1.1)	5 (1.1)	7 (1.7)	25 (1.4)
안마나 애무 강요	11 (2.4)	4 (2.2)	4 (1.3)	2 (2.1)		3 (2.2)	6 (2.0)	5 (2.5)	1 (3.3)	11 (2.8)	7 (1.6)	11 (2.4)	7 (1.7)	36 (2.1)
모임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다르도록 강요	50 (11.0)	19 (10.7)	33 (10.8)	9 (9.6)	5 (11.1)	17 (12.4)	29 (9.8)	23 (11.5)	5 (16.7)	39 (9.9)	48 (10.8)	52 (11.3)	50 (11.8)	189 (11.0)
계	453 (100.0)	178 (100.0)	305 (100.0)	94 (100.0)	45 (100.0)	137 (100.0)	295 (100.0)	200 (100.0)	30 (100.0)	395 (100.0)	446 (100.0)	460 (100.0)	424 (100.0)	1725 (100.0)

2) 성희롱·성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

2-1)항 '성희롱·성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대학 입학 후'가 34.4%, '고등학교 때' 13.4%, '초등학교 때' 5.9%, '중학교 때' 5.7%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대학입학 전' 보다는 '대학입학 후'에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대학에서의 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2-2> 성희롱·성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최초로 경험한 시기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 등 학 교 입 학 전	5 (3.0)	1 (1.8)						2 (3.0)		3 (1.7)	1 (0.6)	2 (1.4)	2 (1.4)	8 (1.3)

구분 최초로 경험한 시기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때	9 (5.4)	2 (3.5)	4 (3.6)	3 (6.1)	3 (11.1)	4 (10.0)	10 (10.4)	3 (4.5)		8 (4.6)	15 (9.6)	7 (4.7)	7 (4.7)	37 (5.9)
중 학교 때	12 (7.1)	3 (5.3)	4 (3.6)	1 (2.0)	1 (3.7)	3 (7.5)	5 (5.2)	5 (7.5)	2 (14.3)	7 (4.0)	13 (8.3)	8 (5.4)	8 (5.4)	36 (5.7)
고등학교 때	21 (12.5)	7 (12.3)	16 (14.4)	9 (18.4)	1 (3.7)	4 (10.0)	14 (14.6)	11 (16.4)	1 (7.1)	30 (17.1)	21 (13.5)	19 (12.8)	14 (9.5)	84 (13.4)
대학입학 후	53 (31.5)	30 (52.6)	39 (35.1)	15 (30.6)	5 (18.5)	13 (32.5)	33 (34.4)	26 (38.8)	3 (21.4)	40 (22.9)	55 (35.3)	65 (43.9)	56 (37.8)	216 (34.4)
부응답	68 (40.5)	14 (24.6)	48 (43.2)	21 (42.9)	17 (63.0)	16 (40.0)	34 (35.4)	20 (29.9)	8 (57.1)	87 (49.7)	51 (32.7)	47 (31.8)	61 (41.2)	246 (39.2)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3)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

성희롱·성폭력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음란성 대중매체의 영향'에 답한 학생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의 허용적인 태도(24.2%)'나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18.0%)', '가부장적인 사회구조(13.4%)', '법적 규제의 미비(7.7%)'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3〉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

(단위 : 명(%))

구분 발생원인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의 허용적인 태	34 (20.2)	17 (29.8)	29 (26.1)	11 (22.4)	8 (29.6)	15 (37.5)	18 (18.8)	17 (25.4)	5 (35.7)	40 (22.9)	36 (23.1)	33 (22.3)	43 (29.1)	152 (24.2)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27 (16.1)	8 (14.0)	9 (8.1)	8 (16.3)	6 (22.2)	4 (10.0)	14 (14.6)	5 (7.5)	3 (21.4)	26 (14.9)	22 (14.1)	22 (14.9)	14 (9.5)	84 (13.4)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	28 (16.7)	8 (14.0)	21 (18.9)	5 (10.2)	4 (14.8)	10 (25.0)	22 (22.9)	13 (19.4)	2 (14.3)	31 (17.7)	33 (21.2)	23 (15.5)	26 (17.6)	113 (18.0)
음란성 대중매체의 영향	45 (26.8)	10 (17.5)	30 (27.0)	14 (28.6)	7 (25.9)	9 (22.5)	24 (25.0)	15 (22.4)	2 (14.3)	48 (27.4)	36 (23.1)	33 (22.3)	39 (26.4)	156 (24.9)
법적 규제의 미비	16 (9.5)	7 (12.3)	5 (4.5)	5 (10.2)	1 (3.7)		9 (9.4)	4 (6.0)	1 (7.1)	12 (6.9)	14 (9.0)	10 (6.8)	12 (8.1)	48 (7.7)
기타	3 (1.8)	5 (8.8)	4 (3.6)	4 (8.2)		1 (2.5)	4 (4.2)	3 (4.5)	1 (7.1)	4 (2.3)	6 (3.8)	10 (6.8)	5 (3.4)	25 (4.0)

구분 발생원인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응답	15 (8.9)	2 (3.5)	13 (11.7)	2 (4.1)	1 (3.7)	1 (2.5)	5 (5.2)	10 (14.9)		14 (8.0)	9 (5.8)	17 (11.5)	9 (6.1)	49 (7.8)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경험시기, 장소와 이유

#### 1)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경험시기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시기는 <표 3-1>과 같이, '입학 후 1~6개월'이 22.8%, '입학 후 1년 이상' 16.7%, '입학 후 7개월~1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로 보아서는 대학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입학 초기부터 이루어져 대학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표 3-1>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경험시기

(단위 : 명(%))

구분 경험시기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입학 후 1~6개월	33 (19.6)	17 (29.8)	26 (23.4)	12 (24.5)	5 (18.5)	9 (22.5)	22 (22.9)	17 (25.4)	3 (21.4)	43 (24.6)	38 (24.4)	32 (21.6)	30 (20.3)	143 (22.8)
입학 후 7개월~1년	22 (13.1)	12 (21.1)	12 (10.8)	5 (10.2)	1 (3.7)	6 (15.0)	7 (7.3)	7 (10.4)	1 (7.1)	13 (7.4)	23 (14.7)	17 (11.5)	19 (12.8)	72 (11.5)
입학 후 1년 이상	25 (14.9)	9 (15.8)	22 (19.8)	5 (10.2)	4 (14.8)	8 (20.0)	16 (16.7)	14 (20.9)	2 (14.3)	6 (3.4)	27 (17.3)	40 (27.0)	32 (21.6)	105 (16.7)
무응답	88 (52.4)	19 (33.3)	51 (45.9)	27 (55.1)	17 (63.0)	17 (42.5)	51 (53.1)	29 (43.3)	8 (57.1)	113 (64.6)	68 (43.6)	59 (39.9)	67 (45.3)	307 (49.0)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2) 대학 입학후 성희롱·성폭력 경험장소

대학에 입학한 후 교내·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장소가 어딘인지에 대한 물음에 '술집, 나이트클럽'에서 26.7%, 'M.T.장소(10.6%)',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7.4%)', '차안에서(6.3%)', '한적한 곳(6.1%)', '캠퍼스내의 기타 장소나 시설물(5.8%)', '동아리방', '노래방, 비디오방' 각각 5.0%, '커피, 카페, 음식점(4.7%)'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간혹 교내의 '학과·학생회·과방 사무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등에서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대학 입학후 성희롱·성폭력 경험장소

〈단위 : 명(%)〉

구 분 장 소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 아 리 방	4 (3.0)	1 (1.9)	6 (6.3)		1 (5.9)	9 (13.2)	6 (7.3)	1 (1.5)		7 (6.8)	6 (4.0)	8 (4.7)	7 (5.4)	28 (5.0)
학생회 사무실	1 (0.8)		1 (1.0)				1 (1.2)	1 (1.5)		2 (1.9)	1 (0.7)	1 (0.6)		4 (0.7)
과 방 사무실	8 (6.0)	3 (5.7)	3 (3.1)	5 (15.6)	2 (11.8)	1 (1.5)	1 (1.2)	1 (1.5)		5 (4.9)	8 (5.3)	4 (2.3)	7 (5.4)	24 (4.3)
강 의 실	1 (0.8)		2 (2.1)			5 (7.4)	3 (3.7)	3 (4.5)		1 (1.0)	3 (2.0)	5 (2.9)	5 (3.8)	14 (2.5)
실험실습실				1 (3.1)	1 (5.9)	2 (2.9)	2 (2.4)	2 (3.0)		1 (1.0)		5 (2.9)	2 (1.5)	8 (1.4)
기 숙 사														
교수연구실					1 (5.9)		1 (1.2)					2 (1.2)		2 (0.4)
학과 사무실	1 (0.8)			1 (3.1)		2 (2.9)		1 (1.5)		2 (1.9)	2 (1.3)	1 (0.6)		5 (0.9)
운 동 장	2 (1.5)						1 (1.2)	1 (1.5)		1 (1.0)	1 (0.7)	2 (1.2)		4 (0.7)
교내 주차장		1 (1.9)					1 (1.2)				1 (0.7)	1 (0.6)		2 (0.4)
캠 퍼 스 내 의 타 기	6 (4.5)	10 (18.9)	4 (4.2)	1 (3.1)	1 (5.9)	3 (4.4)	4 (4.9)	1 (1.5)	2 (18.2)	8 (7.8)	8 (5.3)	8 (4.7)	8 (6.2)	32 (5.8)
M. T. 장소	9 (6.8)	5 (9.4)	9 (9.4)	4 (12.5)	2 (11.8)	5 (7.4)	12 (14.6)	13 (19.7)		9 (8.7)	16 (10.7)	22 (12.8)	12 (9.2)	59 (10.6)
우 리 집			1 (1.0)			1 (1.5)		1 (1.5)		1 (1.0)	1 (0.7)	1 (0.6)		3 (0.5)
자취집, 하숙집		1 (1.9)	1 (1.0)					2 (3.0)		1 (1.0)	2 (1.3)	1 (0.6)		4 (0.7)
가해자의 집	1 (0.8)		1 (1.0)					1 (1.5)			1 (0.7)	1 (0.6)	1 (0.8)	3 (0.5)
학 원	2 (1.5)				2 (11.8)							1 (0.6)	2 (1.5)	3 (0.5)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	13 (9.8)	6 (11.3)	10 (10.4)	1 (3.1)		5 (7.4)	7 (8.5)			4 (3.9)	13 (8.7)	13 (7.6)	11 (8.5)	41 (7.4)
차 안 예 서	17 (12.8)	1 (1.9)	4 (4.2)	1 (3.1)	1 (5.9)	3 (4.4)	4 (4.9)	3 (4.5)	1 (9.1)	6 (5.8)	11 (7.3)	8 (4.7)	10 (7.7)	35 (6.3)
영 화 관	2 (1.5)		3 (3.1)			1 (1.5)	3 (3.7)			4 (3.9)	1 (0.7)	4 (2.3)		9 (1.6)

장 소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엘리베이터안		1 (0.8)		1 (1.0)			2 (2.9)	1 (1.2)			2 (1.9)	2 (1.3)	1 (0.6)		5 (0.9)
숙 박 업 소		2 (1.5)					1 (1.5)		1 (1.5)		1 (1.0)		2 (1.2)	1 (0.8)	4 (0.7)
술 나이트클럽		34 (25.6)	18 (34.0)	28 (29.2)	9 (28.1)	2 (11.8)	16 (23.5)	16 (19.5)	21 (31.8)	4 (36.4)	27 (26.2)	34 (22.7)	50 (29.1)	37 (28.5)	148 (26.7)
커피숍, 카페 음 식		13 (9.8)	2 (3.8)	4 (4.2)	2 (6.3)		3 (4.4)	1 (1.2)	1 (1.5)		3 (2.9)	9 (6.0)	8 (4.7)	6 (4.6)	26 (4.7)
노 래 방 비 디 오 방		7 (5.3)	1 (1.9)	2 (2.1)	3 (9.4)	1 (5.9)	4 (5.9)	5 (6.1)	4 (6.1)	1 (9.1)	6 (5.8)	10 (6.7)	7 (4.1)	5 (3.8)	28 (5.0)
한 적 한 곳		7 (5.3)	2 (3.8)	9 (9.4)		1 (5.9)	2 (2.9)	8 (9.8)	4 (6.1)	2 (18.2)	5 (4.9)	10 (6.7)	10 (5.8)	9 (6.9)	34 (6.1)
기 타		2 (1.5)	2 (3.8)	7 (7.3)	4 (12.5)	2 (11.8)	3 (4.4)	5 (6.1)	4 (6.1)	1 (9.1)	7 (6.8)	10 (6.7)	6 (3.5)	7 (5.4)	30 (5.4)
계		133 (100.0)	53 (100.0)	96 (100.0)	32 (100.0)	17 (100.0)	68 (100.0)	82 (100.0)	66 (100.0)	11 (100.0)	103 (100.0)	150 (100.0)	172 (100.0)	130 (100.0)	555 (100.0)

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표 3-3>에서 나타난 것 처럼, '주변인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에'가 11.6%, '술에 만취되어서(8.8%)', '한적한 장소라서(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주변인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에'는 저학년이, '술에 만취되어서'와 '한적한 장소라서'는 고학년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표 3-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단위 : 명(%)>

이 유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 인 및 보 상 때 문 에					2 (4.1)			1 (1.5)			1 (0.6)		1 (0.7)	1 (0.7)	3 (0.5)
협박 및 구타로 인 한 강 압		1 (0.6)		2 (1.8)	1 (2.0)	1 (3.7)	1 (2.5)		1 (1.5)		2 (1.1)	4 (2.6)		1 (0.7)	7 (1.1)
성 적 요 구 거 부		1 (0.6)		1 (0.9)				1 (1.0)					2 (1.4)	1 (0.7)	3 (0.5)
한 적 한 장 소 여 서		8 (4.8)	2 (3.5)	11 (9.9)	3 (6.1)	1 (3.7)		6 (6.3)	3 (4.5)	2 (14.3)	5 (2.9)	7 (4.5)	12 (8.1)	11 (7.4)	35 (5.6)

구분 이유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주 변 인 의 방치와 무관심	16 (9.5)	10 (17.5)	10 (9.0)	6 (12.2)	4 (14.8)	8 (20.0)	9 (9.4)	9 (13.4)	1 (7.1)	18 (10.3)	26 (16.7)	20 (13.5)	9 (6.1)	73 (11.6)
마취제나 수면제 같은 약물이용	1 (0.6)	2 (3.5)	2 (1.8)				2 (2.1)	1 (1.5)		2 (1.1)	1 (0.6)	2 (1.4)	3 (2.0)	8 (1.3)
깊은 잠이 들어	1 (0.6)									1 (0.6)				1 (0.2)
술에 만취되어	8 (4.8)	5 (8.8)	15 (13.5)	5 (10.2)	1 (3.7)	5 (12.5)	10 (10.4)	5 (7.5)	1 (7.1)	9 (5.1)	10 (6.4)	15 (10.1)	21 (14.2)	55 (8.8)
음란비디오를 이 용한 성충농유발	2 (1.2)					1 (2.5)				3 (1.7)				3 (0.5)
신 분 상 에 불 이익 초래	3 (1.8)	3 (5.3)	1 (0.9)	1 (2.0)	1 (3.7)	1 (2.5)		3 (4.5)		3 (1.7)	4 (2.6)	3 (2.0)	2 (1.4)	12 (1.9)
기 타	26 (15.5)	10 (17.5)	15 (13.5)	2 (4.1)	4 (14.8)	7 (17.5)	7 (7.3)	11 (16.4)		13 (7.4)	23 (14.7)	26 (17.6)	20 (13.5)	82 (13.1)
무 응 답	101 (60.1)	25 (43.9)	54 (48.6)	29 (59.2)	15 (55.6)	17 (42.5)	61 (63.5)	33 (49.3)	10 (71.4)	118 (67.4)	81 (51.9)	67 (45.3)	79 (53.4)	345 (55.0)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4.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 1) 대학입학 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대학입학 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학과 친구나 선·후배(32.7%)'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도 25.5%나 되었고, '동아리 친구나 선·후배'라고 응답한 학생도 18.2%나 되었다. 또한 극히 적은 응답율이긴 하지만 '형제, 친척, 직원, 교수, 조교'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표 3-3>의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까봐'에 1.9%의 반응을 나타난 것은 이 항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표 4-1> 대학입학 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단위 : 명(%))

구분 가해자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 버 지														
형 제							1 (2.1)					1 (0.7)		1 (0.2)

구분 가해자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친척			1 (1.4)								1 (0.9)			1 (0.2)
친구	16 (9.5)	3 (6.3)	8 (11.4)			5 (10.4)	2 (3.2)			7 (8.9)	7 (6.4)	6 (4.4)	7 (6.8)	27 (6.3)
애인	5 (4.8)	2 (4.2)	1 (1.4)	1 (3.6)	2 (14.3)	4 (8.3)	2 (3.2)	2 (4.2)		3 (3.8)	4 (3.7)	8 (5.8)	4 (3.9)	19 (4.4)
학과 친구나 선·후배	25 (23.8)	19 (39.6)	20 (28.6)	9 (32.1)	8 (57.1)	16 (33.3)	20 (32.3)	20 (41.7)	3 (42.9)	25 (31.6)	36 (33.0)	46 (33.6)	33 (32.0)	140 (32.7)
동아리 친구나 선·후배	20 (19.0)	11 (22.9)	8 (11.4)	5 (17.9)		12 (25.0)	15 (24.2)	7 (14.6)		18 (22.8)	19 (17.4)	26 (19.0)	15 (14.6)	78 (18.2)
조교				1 (3.6)			1 (1.6)	1 (2.1)				3 (2.2)		3 (0.7)
교수			1 (1.4)	2 (7.1)	1 (7.1)		1 (1.6)	2 (4.2)				6 (4.4)	1 (1.0)	7 (1.6)
직원	2 (1.9)	3 (6.3)	1 (1.4)	1 (3.6)		2 (4.2)	6 (9.7)			3 (3.8)	3 (2.8)	6 (4.4)	3 (2.9)	15 (3.5)
모르는 사람	36 (34.3)	8 (16.7)	22 (31.4)	6 (21.4)	2 (14.3)	7 (14.6)	12 (19.4)	13 (27.1)	4 (57.1)	20 (25.3)	30 (27.5)	28 (20.4)	31 (30.1)	109 (25.5)
기타	7 (6.7)	2 (4.2)	8 (11.4)	3 (10.7)	1 (7.1)	2 (4.2)	3 (4.8)	2 (4.2)		3 (3.8)	9 (8.3)	7 (5.1)	9 (8.7)	28 (6.5)
계	105 (100.0)	48 (100.0)	70 (100.0)	28 (100.0)	14 (100.0)	48 (100.0)	62 (100.0)	48 (100.0)	7 (100.0)	79 (100.0)	109 (100.0)	137 (100.0)	103 (100.0)	428 (100.0)

2)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층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나 선·후배인 '20대(38.0%)'와 '30대(5.3%)'로 나타났으며, '10대(1.6%)', '50대(1.4%)', '60대 이상(0.2%)'도 가해 연령층으로 보아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

〈단위: 명(%)〉

구분 가해자의 연령층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0대	3 (1.8)	1 (1.8)	3 (2.7)	1 (2.0)			2 (2.1)			6 (3.4)		3 (2.0)	1 (0.7)	10 (1.6)
20대	51 (30.4)	27 (47.4)	48 (43.2)	16 (32.7)	9 (33.3)	22 (55.0)	36 (37.5)	27 (40.3)	3 (21.4)	46 (26.3)	64 (41.0)	67 (45.3)	61 (41.2)	238 (38.0)

가해자의 연령층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0대		13 (7.7)	7 (12.3)	6 (5.4)	2 (4.1)			3 (3.1)	1 (1.5)	1 (7.1)	7 (4.0)	11 (7.1)	9 (6.1)	6 (4.1)	33 (5.3)
40대		12 (7.1)	1 (1.8)	5 (4.5)	2 (4.1)	1 (3.7)		1 (1.0)	2 (3.0)	1 (7.1)	4 (2.3)	4 (2.6)	8 (5.4)	8 (5.4)	24 (3.8)
50대		1 (0.6)	1 (1.8)	2 (1.8)	1 (2.0)			1 (1.0)	3 (4.5)			2 (1.3)	4 (2.7)	3 (2.0)	9 (1.4)
60대 이상								1 (1.0)					1 (0.7)		1 (0.2)
무 응답		88 (52.4)	20 (35.1)	47 (42.3)	27 (55.1)	17 (63.0)	18 (45.0)	52 (54.2)	34 (50.7)	9 (64.3)	112 (64.0)	75 (48.1)	56 (37.8)	69 (46.6)	312 (49.8)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혼인관계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물음에 '미혼자'에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지 못함' 14.2%, '기혼자'에 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지 못함'에 나타난 반응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4-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혼인관계

(단위 : 명(%))

가해자의 혼인관계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 혼 자		44 (26.2)	23 (40.4)	37 (33.3)	13 (26.5)	7 (25.9)	19 (47.5)	30 (31.3)	19 (28.4)	4 (28.6)	40 (22.9)	54 (34.6)	54 (36.5)	47 (31.8)	195 (31.1)
기 혼 자		12 (7.1)	5 (8.8)	8 (7.2)	4 (8.2)			2 (2.1)	1 (1.5)		8 (4.6)	6 (3.8)	8 (5.4)	9 (6.1)	31 (4.9)
이 혼 자 (별거포함)			2 (3.5)								1 (0.6)		1 (0.7)		2 (3)
동 거								1 (1.0)	1 (1.5)			2 (1.3)			2 (3)
알지못함		26 (15.5)	8 (14.0)	19 (17.1)	5 (10.2)	3 (11.1)	3 (7.5)	10 (10.4)	13 (19.4)	2 (14.3)	15 (8.6)	21 (13.5)	29 (19.6)	24 (16.2)	89 (14.2)
무 응답		86 (51.2)	19 (33.3)	47 (42.3)	27 (55.1)	17 (63.0)	18 (45.0)	53 (55.2)	33 (49.3)	8 (57.1)	111 (63.4)	73 (46.8)	56 (37.8)	68 (45.9)	308 (49.1)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5.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 대처하지 못한 이유, 반응, 감정과 느낌, 후유증

1)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마음이 들떠있는 행사(생일파티, 학교 축제, 연말 등)'에 31.9%, '혼자 있을 때'가 14.1%, 'M.T.활동 중에' 12.1%로 학년별로는 저학년 보다 고학년 일수록 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

(단위 : 명(%))

구분 피해상황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성친구와 동 반	7 (6.9)	2 (5.0)	6 (7.8)	1 (3.8)	1 (7.1)	4 (11.4)	2 (3.8)	1 (2.6)	1 (16.7)	6 (8.5)	4 (4.1)	10 (8.1)	5 (5.2)	25 (6.4)
혼자 일 때	16 (15.8)	10 (25.0)	10 (13.0)	3 (11.5)	2 (14.3)	2 (5.7)	5 (9.4)	7 (17.9)		10 (14.1)	14 (14.3)	19 (15.4)	12 (12.4)	55 (14.1)
귀가 중에	15 (14.9)	1 (2.5)	7 (9.1)	4 (15.4)	2 (14.3)	3 (8.6)	6 (11.3)	4 (10.3)	1 (16.7)	10 (14.1)	11 (11.2)	9 (7.3)	12 (12.4)	42 (10.8)
마 음 이 들 떠 있는 행사	30 (29.7)	14 (35.0)	26 (33.8)	9 (34.6)	5 (35.7)	11 (31.4)	14 (26.4)	13 (33.3)	2 (33.3)	18 (25.4)	33 (33.7)	39 (31.7)	34 (35.1)	124 (31.9)
아 르 바이트 중 에	7 (6.9)	5 (12.5)	8 (10.4)		1 (7.1)	6 (17.1)	7 (13.2)	1 (2.6)	1 (16.7)	4 (5.6)	11 (11.2)	11 (8.9)	9 (9.3)	35 (9.0)
M. T. 활 동 중 에	10 (9.9)	4 (10.0)	9 (11.7)	3 (11.5)	1 (7.1)	4 (11.4)	9 (17.0)	7 (17.9)		9 (12.7)	10 (10.2)	17 (13.8)	11 (11.3)	47 (12.1)
기 타	16 (15.8)	4 (10.0)	11 (14.3)	6 (23.1)	2 (14.3)	5 (14.3)	10 (18.9)	6 (15.4)	1 (16.7)	14 (19.7)	15 (15.3)	18 (14.6)	14 (14.4)	61 (15.7)
계	101 (100.0)	40 (100.0)	77 (100.0)	26 (100.0)	14 (100.0)	35 (100.0)	53 (100.0)	39 (100.0)	6 (100.0)	71 (100.0)	98 (100.0)	123 (100.0)	97 (100.0)	389 (100.0)

2)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18.8%로 가장 많았고, '학점에 영향이 있을까봐' 7.8%,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봐' 6.4%,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해 할까봐' 4.5%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2〉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처하지 못한 이유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1 (12.5)	14 (24.6)	22 (19.8)	7 (14.3)	6 (22.2)	10 (25.0)	14 (14.6)	20 (29.9)	4 (28.6)	22 (12.6)	30 (19.2)	33 (22.3)	33 (22.3)	118 (18.8)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2 (1.2)	2 (3.5)	4 (3.6)				2 (5.0)	2 (2.1)	1 (1.5)	2 (1.1)	3 (1.9)	3 (2.0)	5 (3.4)	13 (2.1)
저항해도 소용 없다고 생각해	6 (3.6)		3 (2.7)				1 (2.5)	3 (3.1)	1 (1.5)	5 (2.9)	3 (1.9)	4 (2.7)	2 (1.4)	14 (2.2)
저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할까 봐	7 (4.2)	5 (8.8)	7 (6.3)	5 (10.2)				4 (4.2)	1 (1.5)	8 (4.6)	9 (5.8)	4 (2.7)	7 (4.7)	28 (4.5)
남들이 알면 창피할까 봐	5 (3.0)	4 (7.0)	4 (3.6)	1 (2.0)	1 (3.7)	2 (5.0)	2 (2.1)			2 (1.1)	8 (5.1)	4 (2.7)	5 (3.4)	19 (3.0)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15 (8.9)	3 (5.3)	10 (9.0)	4 (8.2)	1 (3.7)	1 (2.5)	5 (5.2)	2 (3.0)		5 (4.6)	10 (6.4)	12 (8.1)	10 (6.8)	40 (6.4)
학교 생활이 불편해질까 봐	6 (3.6)	1 (1.8)	1 (0.9)	3 (6.1)	1 (3.7)	2 (5.0)	3 (3.1)	3 (4.5)	1 (7.1)	5 (2.9)	5 (3.2)	8 (5.4)	3 (2.0)	21 (3.3)
학점에 영향이 있을까 봐	14 (8.3)	5 (8.8)	11 (9.9)	1 (2.0)	1 (3.7)	3 (7.5)	10 (10.4)	4 (6.0)		9 (5.1)	12 (7.7)	17 (11.5)	11 (7.4)	49 (7.8)
무응답	92 (54.8)	23 (40.4)	49 (44.1)	28 (57.1)	17 (63.0)	19 (47.5)	53 (55.2)	35 (52.2)	9 (64.3)	114 (65.1)	76 (48.7)	63 (42.6)	72 (48.6)	325 (51.8)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보인 외적인 반응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보인 외적인 반응을 보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냥 웃어 넘겼다'의 경우가 각각 10.8%와 10.7%의 반응이며, '반응을 안보이고 무시했다'가 9.4%, '아무말이나 행동도 못했다'에 4.5% 등 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며, '저항했다', '타일렀다', '소리를 질렀다', '싫다고 말했다', '화를 내었다'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11.2%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보인 반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5-3〉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 보인 외적인 반응

〈단위 : 명(%)〉

구분 피해시 외적 반응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냥 웃어 넘김	17 (10.1)	5 (8.8)	13 (11.7)	8 (16.3)	1 (3.7)	7 (17.5)	11 (11.5)	6 (9.0)		15 (8.6)	20 (12.8)	18 (12.2)	14 (9.5)	67 (10.7)
울 었 다	1 (0.6)	2 (3.5)	1 (0.9)		1 (3.7)	1 (2.5)	3 (3.1)	1 (1.5)		2 (1.1)	3 (1.9)	3 (2.0)	2 (1.4)	10 (1.6)
아 무 말 이 나 행 동 도 못 함	10 (6.0)	5 (8.8)	3 (2.7)	2 (4.1)	1 (3.7)	1 (2.5)	4 (4.2)	1 (1.5)	1 (7.1)	10 (5.7)	7 (4.5)	3 (2.0)	8 (5.4)	28 (4.5)
반 응 을 안 도 이 고 무 시 함	13 (7.7)	4 (7.0)	10 (9.0)	3 (6.1)	3 (11.1)	6 (15.0)	5 (5.2)	11 (16.4)	4 (28.6)	9 (5.1)	17 (10.9)	14 (9.5)	19 (12.8)	59 (9.4)
저 항 함	5 (3.0)	2 (3.5)	3 (2.7)		1 (3.7)		3 (3.1)			1 (0.6)	3 (1.9)	5 (3.4)	5 (3.4)	14 (2.2)
타 일 렸 다			1 (0.9)	1 (2.0)			1 (1.0)	1 (1.5)		1 (0.6)		1 (0.7)	2 (1.4)	4 (0.6)
소 리 를 질 렸 다	4 (2.4)	1 (1.8)	3 (2.7)	2 (4.1)							2 (1.3)	7 (4.7)	1 (0.7)	10 (1.6)
불 쾌 한 표 정 을 지	18 (10.7)	11 (19.3)	15 (13.5)	3 (6.1)	2 (7.4)	6 (15.0)	6 (6.3)	7 (10.4)		15 (8.6)	18 (11.5)	20 (13.5)	15 (10.1)	68 (10.8)
싫 다 고 말 함	5 (3.0)	2 (3.5)	6 (5.4)	2 (4.1)		1 (2.5)	4 (4.2)			5 (2.9)	3 (1.9)	6 (4.1)	5 (3.4)	19 (3.0)
화 를 냄	7 (4.2)	4 (7.0)	3 (2.7)	1 (2.0)	1 (3.7)	1 (2.5)	3 (3.1)	4 (6.0)		4 (2.3)	9 (5.8)	6 (4.1)	5 (3.4)	24 (3.8)
기 타	2 (1.2)	1 (1.8)	2 (1.8)				4 (4.2)	2 (3.0)		1 (0.6)	2 (1.3)	5 (3.4)	3 (2.0)	11 (1.8)
무 응 답	86 (51.2)	20 (35.1)	51 (45.9)	27 (55.1)	17 (63.0)	17 (42.5)	52 (54.2)	34 (50.7)	9 (64.3)	112 (64.0)	72 (46.2)	60 (40.5)	69 (46.6)	313 (49.9)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4)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감정과 느낌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감정과 느낌은 '불쾌하고 화가 났다'가 34.1%, '더럽게 느껴졌다'고 답한 학생이 4.1%, '두렵고 무서웠다'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의 경우도 1.9%로 성에 대한 여성의 잠재된 피해의식을 알 수 있었다.

〈표 5-4〉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감정과 느낌

〈단위 : 명(%)〉

구분 피해시 감정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불쾌하고 화남	55 (32.7)	24 (42.1)	48 (43.2)	9 (18.4)	6 (22.2)	17 (42.5)	27 (28.1)	25 (37.3)	4 (28.6)	40 (22.9)	54 (34.6)	65 (43.9)	55 (37.2)	214 (34.1)
두렵고 무서웠음	6 (3.6)	2 (3.5)			2 (7.4)		1 (1.0)	1 (1.5)		3 (1.7)	3 (1.9)	4 (2.7)	2 (1.4)	12 (1.9)
더럽게 느끼짐	8 (4.8)	4 (7.0)	3 (2.7)	2 (4.1)	1 (3.7)	1 (2.5)	3 (3.1)	3 (4.5)	1 (7.1)	5 (2.9)	8 (5.1)	8 (5.4)	5 (3.4)	26 (4.1)
자신 없음			1 (0.9)	1 (2.0)		1 (2.5)	2 (2.1)	2 (3.0)			2 (1.3)	2 (1.4)	3 (2.0)	7 (1.1)
감자 기울 해짐	1 (0.6)	2 (3.5)		2 (4.1)				1 (1.5)		3 (1.7)	2 (1.3)		1 (0.7)	6 (1.0)
누가 알까봐 부끄러웠음	4 (2.4)	3 (5.3)	3 (2.7)		1 (3.7)	1 (2.5)				1 (0.6)	4 (2.6)	2 (1.4)	4 (2.7)	11 (1.8)
내가 잘못했다 는생각이 들었음	4 (2.4)		2 (1.8)	3 (6.1)		1 (2.5)	2 (2.1)			3 (1.7)	3 (1.9)	1 (0.7)	5 (3.4)	12 (1.9)
죽고 싶음		1 (1.8)					1 (1.0)	1 (1.5)		1 (0.6)		2 (1.4)		3 (0.5)
복수 해야 겠다 고			1 (0.9)	1 (2.0)		1 (2.5)	1 (1.0)		1 (7.1)	3 (1.7)		1 (0.7)	1 (0.7)	5 (0.8)
기 타	5 (3.0)	1 (1.8)	3 (2.7)	3 (6.1)		1 (2.5)	8 (8.3)	2 (3.0)		5 (2.9)	9 (5.8)	3 (2.0)	6 (4.1)	23 (3.7)
무 응 답	85 (50.6)	20 (35.1)	50 (45.0)	28 (57.1)	17 (63.0)	17 (42.5)	51 (53.1)	32 (47.8)	8 (57.1)	111 (63.4)	71 (45.5)	60 (40.5)	66 (44.6)	308 (49.1)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5)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후유증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후유증으로는 '가해자를 피하게 됐다' 23.9%, '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12.1%,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됐다' 11.5%,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불안했다' 9.2%, '혼자 있고 싶었다' 6.0%, '공포감에 시달렸다' 3.4%, '식사나 잠자는 것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 2.0% 등이 순으로 답하였다.

〈표 5-5〉 대학 입학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후유증

〈단위 : 명(%)〉

구분 피해 후유증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식사나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곤란		3 (6.7)	1 (1.4)	1 (4.3)			1 (2.2)	1 (3.1)		1 (1.4)	2 (2.3)	4 (3.6)		7 (2.0)
가슴이 두근 거리고 불안	9 (11.0)	4 (8.9)	9 (12.3)	1 (4.3)	3 (23.1)	2 (6.9)	2 (4.4)		2 (28.6)	4 (5.7)	9 (10.5)	13 (11.6)	6 (7.5)	32 (9.2)
대인관계 기피	6 (7.3)	9 (20.0)	11 (15.1)		2 (15.4)	2 (6.9)	7 (15.6)	2 (6.3)	1 (14.3)	12 (17.1)	6 (7.0)	8 (7.1)	14 (17.5)	40 (11.5)
가해자 기피	20 (24.4)	11 (24.4)	17 (23.3)	6 (26.1)	2 (15.4)	8 (27.6)	6 (13.3)	12 (37.5)	1 (14.3)	14 (20.0)	21 (24.4)	27 (24.1)	21 (26.3)	83 (23.9)
혼자 있음 고움	3 (3.7)	3 (6.7)	5 (6.8)		1 (7.7)	2 (6.9)	4 (8.9)	2 (6.3)	1 (14.3)	3 (4.3)	3 (3.5)	10 (8.9)	5 (6.3)	21 (6.0)
공포감 에림	2 (2.4)	3 (6.7)		1 (4.3)	1 (7.7)	1 (3.4)	2 (4.4)	1 (3.1)	1 (14.3)	6 (8.6)	1 (1.2)	4 (3.6)	1 (1.3)	12 (3.4)
학업 능력하	1 (1.2)		3 (4.1)	1 (4.3)				1 (3.1)		1 (1.4)		3 (2.7)	2 (2.5)	6 (1.7)
학업 전예 의	1 (1.2)		1 (1.4)	1 (4.3)				1 (3.1)		3 (4.3)		1 (0.9)		4 (1.1)
휴학 고려		2 (4.4)	3 (4.1)							1 (1.4)	1 (1.2)	1 (0.9)	1 (1.3)	4 (1.1)
성애 대한 혐오 생김	11 (13.4)	4 (8.9)	6 (8.2)	3 (13.0)	2 (15.4)	3 (10.3)	7 (15.6)	5 (15.6)	1 (14.3)	10 (14.3)	9 (10.5)	17 (15.2)	6 (7.5)	42 (12.1)
성병 에림							1 (2.2)					1 (0.9)		1 (0.3)
성기 등 신체 이상						1 (3.4)				1 (1.4)				1 (0.3)
임신 합		1 (2.2)						1 (3.1)				1 (0.9)	1 (1.3)	2 (0.6)
자살 충동							1 (2.2)						1 (1.3)	1 (0.3)
자살 기도														
기 타	29 (35.4)	5 (11.1)	17 (23.3)	9 (39.1)	2 (15.4)	10 (34.5)	14 (31.1)	6 (18.8)		14 (20.0)	34 (39.5)	22 (19.6)	22 (27.5)	92 (26.4)
계	82 (100.0)	45 (100.0)	73 (100.0)	23 (100.0)	13 (100.0)	29 (100.0)	45 (100.0)	32 (100.0)	7 (100.0)	70 (100.0)	86 (100.0)	112 (100.0)	80 (100.0)	348 (100.0)

6.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처방법과 고민스러웠던 점

1)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대처행동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대처한 행동으로는 '스스로 해결' 하는 경우가 28.1%, '친구나 선·후배와와 상의' 하는 경우가 23.9%,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 11.7%, '애인과 상의' 3.3%, '부모와 상의' 3.1%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까운 주변사람과 상의하여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문적인 상담관련 기관 등에서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에게 알려질까봐 겁이 나거나, 하소연 할 곳이 없거나,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고발센터나 기관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 <표 6-2>의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가장 고민했던 점에 대한 반응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1>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대처행동

(단위 : 명(%))

구분 피해후 대처행동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부모와 상의	6 (6.1)	3 (7.0)		1 (3.6)		1 (3.7)	1 (2.3)			1 (1.6)	5 (5.3)	4 (3.7)	1 (1.1)	11 (3.1)
형제나 친척과 상의	2 (2.0)	1 (2.3)	3 (4.3)		1 (8.3)			1 (2.7)		1 (1.6)	1 (1.1)	4 (3.7)	2 (2.1)	8 (2.2)
친구나 선· 후배와 상의	21 (21.4)	8 (18.6)	19 (27.5)	5 (17.9)	3 (25.0)	3 (11.1)	12 (27.9)	14 (37.8)	2 (40.0)	14 (21.9)	23 (24.5)	31 (29.0)	18 (18.9)	86 (23.9)
애인과 상의	1 (1.0)	1 (2.3)	1 (1.4)		2 (16.7)	2 (7.4)	1 (2.3)	4 (10.8)		1 (1.6)	4 (4.3)	4 (3.7)	3 (3.2)	12 (3.3)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	7 (7.1)	9 (20.9)	10 (14.5)	3 (10.7)	3 (25.0)	4 (14.8)	1 (2.3)	5 (13.5)		6 (9.4)	13 (13.8)	11 (10.3)	12 (12.6)	42 (11.7)
가해자를 아는 사람과 상의	2 (2.0)	1 (2.3)	1 (1.4)	1 (3.6)	1 (8.3)	1 (3.7)	2 (4.7)			2 (3.1)	3 (3.2)	3 (2.8)	1 (1.1)	9 (2.5)
스스로 해결	31 (31.6)	12 (27.9)	17 (24.6)	8 (28.6)	2 (16.7)	7 (25.9)	18 (41.9)	4 (10.8)	2 (40.0)	22 (34.4)	26 (27.7)	27 (25.2)	26 (27.4)	101 (28.1)
학교 당국 과 상의	1 (1.0)												1 (1.1)	1 (0.3)
교내 상담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	1 (1.0)		1 (1.4)					1 (2.7)				1 (0.9)	2 (2.1)	3 (0.8)
외부 전문관련 기관과 상의	1 (1.0)	1 (2.3)	1 (1.4)					2 (5.4)				1 (0.9)	4 (4.2)	5 (1.4)
경찰에 신고	3 (3.1)	2 (4.7)					1 (2.3)			2 (3.1)		3 (2.8)	1 (1.1)	6 (1.7)

구분 피해후 대처행동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9 (9.2)	4 (9.3)	6 (8.7)	5 (17.9)		2 (7.4)	4 (9.3)	1 (2.7)	1 (20.0)	7 (10.9)	6 (6.4)	8 (7.5)	11 (11.6)	32 (8.9)
기 타	13 (13.3)	1 (2.3)	10 (14.5)	5 (17.9)		7 (25.9)	3 (7.0)	5 (13.5)		8 (12.5)	13 (13.8)	10 (9.3)	13 (13.7)	44 (12.2)
계	98 (100.0)	43 (100.0)	69 (100.0)	28 (100.0)	12 (100.0)	27 (100.0)	43 (100.0)	37 (100.0)	5 (100.0)	64 (100.0)	94 (100.0)	107 (100.0)	95 (100.0)	360 (100.0)

2)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후 가장 고민했던 점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후 가장 고민했던 점에 대한 물음에 '고민하지 않았다'의 경우가 20.1%, '남에게 알려질까봐 겁이 났다' 7.7%,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막막했다' 6.7%,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고발센터나 기관이 별로 없어 답답했다' 4.3%, '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3.7%, '나의 미래가 잘못될 것 같아 불안했다' 2.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로 보아서는 학생들이 이용에 용이한 학내의 전문기관에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업무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2>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후 가장 고민했던 점

<단위 : 명(%)>

구분 경험후 고민문제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에게 알려질까봐 겁이 났다	10 (6.0)	11 (19.3)	10 (9.0)	1 (2.0)	3 (11.1)	1 (2.5)	7 (7.3)	5 (7.5)	1 (7.1)	8 (4.6)	12 (7.7)	10 (6.8)	18 (12.2)	48 (7.7)
나의 미래가 잘못될 것 같아 불안하다	4 (2.4)	2 (3.5)	5 (4.5)	2 (4.1)	1 (3.7)	2 (5.0)	1 (1.0)	1 (1.5)		3 (1.7)	4 (2.6)	6 (4.1)	5 (3.4)	18 (2.9)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막막함	9 (5.4)	6 (10.5)	8 (7.2)	2 (4.1)	1 (3.7)	2 (5.0)	9 (9.4)	4 (6.0)	1 (7.1)	12 (6.9)	11 (7.1)	11 (7.4)	8 (5.4)	42 (6.7)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고발센터나 기관이 별로 없어 답답함	6 (3.6)	6 (10.5)	4 (3.6)	2 (4.1)	1 (3.7)	1 (2.5)	4 (4.2)	3 (4.5)		6 (3.4)	8 (5.1)	9 (6.1)	4 (2.7)	27 (4.3)
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구하지 못했다	7 (4.2)	3 (5.3)	5 (4.5)	4 (8.2)	1 (3.7)	1 (2.5)		2 (3.0)		4 (2.3)	5 (3.2)	9 (6.1)	5 (3.4)	23 (3.7)
고민하지 않음	33 (19.6)	9 (15.8)	26 (23.4)	13 (26.5)	2 (7.4)	14 (35.0)	18 (18.8)	9 (13.4)	3 (21.4)	29 (16.6)	38 (24.4)	31 (20.9)	28 (18.9)	126 (20.1)

구분 경험층 고민문제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 응답	99 (58.9)	20 (35.1)	53 (47.7)	25 (51.0)	18 (66.7)	19 (47.5)	57 (59.4)	43 (64.2)	9 (64.3)	113 (64.6)	78 (50.0)	72 (48.6)	80 (54.1)	343 (54.7)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7. 성에 대한 지식 습득처, 교육시기와 고민 해소의 대상

1) 성 지식의 입수경로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지식을 얻는 곳으로는 '대중매체(TV, 비디오, PC, 잡지 등)'에서 30.3%, '성교육 특강(23.3%)', '친구나 선·후배(22.6%)', '교사나 교수(9.7%)', '부모(3.5%)', '형제나 친척(2.2%)' 순으로 대체적으로 대중매체, 성교육 특강, 친구나 선배에게서 성 지식을 얻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조적으로 부모, 형제나 친척에게서 성 지식을 얻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즉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더욱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1〉 성 지식의 입수경로

〈단위 : 명(%)〉

구분 입수경로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부 모	8 (4.8)	2 (3.5)	5 (4.5)		1 (3.7)	1 (2.5)	3 (3.1)	2 (3.0)		2 (1.1)	4 (2.6)	5 (3.4)	11 (7.4)	22 (3.5)
형 제, 친 척	4 (2.4)	3 (5.3)	2 (1.8)		3 (11.1)		1 (1.0)		1 (7.1)	4 (2.3)	2 (1.3)	5 (3.4)	3 (2.0)	14 (2.2)
교 사, 교 수	12 (7.1)	3 (5.3)	16 (14.4)	5 (10.2)	1 (3.7)	10 (25.0)	8 (8.3)	5 (7.5)	1 (7.1)	21 (12.0)	15 (9.6)	14 (9.5)	11 (7.4)	61 (9.7)
친 구 선 · 후 배	37 (22.0)	14 (24.6)	28 (25.2)	10 (20.4)	5 (18.5)	7 (17.5)	20 (20.8)	19 (28.4)	3 (21.4)	32 (18.3)	39 (25.0)	34 (23.0)	37 (25.0)	142 (22.6)
성 교육 특 강	31 (18.5)	9 (15.8)	25 (22.5)	13 (26.5)	6 (22.2)	13 (32.5)	30 (31.3)	14 (20.9)	5 (35.7)	52 (29.7)	39 (25.0)	33 (22.3)	22 (14.9)	146 (23.3)
대 중 매 체	60 (35.7)	15 (26.3)	28 (25.2)	15 (30.6)	10 (37.0)	9 (22.5)	33 (34.4)	18 (26.9)	3 (21.4)	50 (28.6)	43 (27.6)	43 (29.1)	54 (36.5)	190 (30.3)
기 타	3 (1.8)		1 (0.9)	3 (6.1)			1 (1.0)	3 (4.5)		1 (0.6)	5 (3.2)	2 (1.4)	3 (2.0)	11 (1.8)



구분 입수경로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 응 답	13 (7.7)	11 (19.3)	6 (5.4)	3 (6.1)	1 (3.7)			6 (9.0)	1 (7.1)	13 (7.4)	9 (5.8)	12 (8.1)	7 (4.7)	41 (6.5)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2) 성교육을 최초로 받은 시기

성교육은 언제 받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체로 학생들은 응답자의 반 이상이 '초등학교(56.8%)'에서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대학(0.5%)'에서는 거의 성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성지식이 또래에 비해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조차 대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2> 성교육을 최초로 받은 시기

<단위 : 명(&#x25;)>

구분 시기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전	3 (1.8)		1 (0.9)	1 (2.0)			1 (1.0)			2 (1.1)	2 (1.3)		2 (1.4)	6 (1.0)
초등학교	97 (57.7)	24 (42.1)	63 (56.8)	28 (57.1)	15 (55.6)	24 (60.0)	63 (65.6)	34 (50.7)	9 (64.3)	93 (53.1)	98 (62.8)	84 (56.8)	81 (54.7)	356 (56.8)
중 학교	45 (26.8)	21 (36.8)	33 (29.7)	15 (30.6)	8 (29.6)	11 (27.5)	28 (29.2)	20 (29.9)	4 (28.6)	53 (30.3)	40 (25.6)	43 (29.1)	48 (32.4)	184 (29.3)
고등학교	7 (4.2)	2 (3.5)	8 (7.2)	2 (4.1)	1 (3.7)	5 (12.5)	4 (4.2)	2 (3.0)		13 (7.4)	1 (0.6)	10 (6.8)	7 (4.7)	31 (4.9)
대 학	2 (1.2)							1 (1.5)		1 (0.6)	1 (0.6)	1 (0.7)		3 (0.5)
기 타	2 (1.2)	1 (1.8)	1 (0.9)		1 (3.7)			4 (6.0)		1 (0.6)	3 (1.9)	1 (0.7)	4 (2.7)	9 (1.4)
무 응 답	12 (7.1)	9 (15.8)	5 (4.5)	3 (6.1)	2 (7.4)			6 (9.0)	1 (7.1)	12 (6.9)	11 (7.1)	9 (6.1)	6 (4.1)	38 (6.1)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3) 대학입학 후 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의논한 상대

대학입학 후 성에 대한 궁금증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상대로는 대다수가 '친구, 선·후배'에게 가장 많이 의논하고 있으며, '누구와도 상의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도 12.4%나 응답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나 또래 집단에게서 보여지는 성 지식이 전부인양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표 7-3〉 대학입학 후 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의논한 상대

〈단위 : 명(%)〉

의논상대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부 모	10 (6.0)	2 (3.5)	8 (7.2)	4 (8.2)	3 (11.1)	4 (10.0)	9 (9.4)	4 (6.0)		12 (6.9)	13 (8.3)	8 (5.4)	11 (7.4)	44 (7.0)
형제, 친척	8 (4.8)	4 (7.0)	7 (6.3)	2 (4.1)	4 (14.8)		9 (9.4)	4 (6.0)	2 (14.3)	12 (6.9)	12 (7.7)	12 (8.1)	4 (2.7)	40 (6.4)
교 수			1 (0.9)							1 (0.6)				1 (0.2)
친 선 · 후 배	95 (56.5)	25 (43.9)	46 (41.4)	22 (44.9)	16 (59.3)	15 (37.5)	46 (47.9)	33 (49.3)	8 (57.1)	81 (46.3)	69 (44.2)	75 (50.7)	79 (53.4)	304 (48.5)
상 담 관 련 관	19 (11.3)	5 (8.8)	19 (17.1)	6 (12.2)	1 (3.7)	8 (20.0)	12 (12.5)	7 (10.4)		21 (12.0)	18 (11.5)	21 (14.2)	17 (11.5)	77 (12.3)
누구와도 상의 하고 싶지 않음	13 (7.7)	8 (14.0)	16 (14.4)	8 (16.3)	1 (3.7)	11 (27.5)	13 (13.5)	7 (10.4)	1 (7.1)	23 (13.1)	24 (15.4)	13 (8.8)	18 (12.2)	78 (12.4)
기 타	5 (3.0)	3 (5.3)	4 (3.6)	1 (2.0)	1 (3.7)	1 (2.5)	3 (3.1)	6 (9.0)	1 (7.1)	4 (2.3)	8 (5.1)	6 (4.1)	7 (4.7)	25 (4.0)
무 응 답	18 (10.7)	10 (17.5)	10 (9.0)	6 (12.2)	1 (3.7)	1 (2.5)	4 (4.2)	6 (9.0)	2 (14.3)	21 (12.0)	12 (7.7)	13 (8.8)	12 (8.1)	58 (9.3)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8. 성에 대한 가치관

1)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8-1〉과 같이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46.9%,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39.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잘 모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에 6.2%, '지킬 필요가 없다'에 2.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이 52.6%, 3학년이 48.0%, 2학년이 47.4%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4학년은 38.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것은 4학년이 48.0%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표 8-1〉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여성의 순결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켜져야 한다	71 (42.3)	29 (50.9)	47 (42.3)	29 (59.2)	13 (48.1)	17 (42.5)	54 (56.3)	28 (41.8)	7 (50.0)	92 (52.6)	74 (47.4)	71 (48.0)	57 (38.5)	294 (46.9)
지킬 필요 없다	4 (2.4)	1 (1.8)	6 (5.4)				1 (1.0)	3 (4.5)	1 (7.1)	5 (2.9)	2 (1.3)	1 (0.7)	8 (5.4)	16 (2.6)
상황에 따라 다르다	73 (43.5)	12 (21.1)	43 (38.7)	14 (28.6)	13 (48.1)	21 (52.5)	38 (39.6)	27 (40.3)	5 (35.7)	57 (32.6)	61 (39.1)	56 (37.8)	71 (48.0)	245 (39.1)
잘 모르겠다	11 (6.5)	7 (12.3)	10 (9.0)	3 (6.1)		2 (5.0)	2 (2.1)	4 (6.0)		11 (6.3)	10 (6.4)	12 (8.1)	6 (4.1)	39 (6.2)
두 음 답	9 (5.4)	8 (14.0)	5 (4.5)	3 (6.1)	1 (3.7)		1 (1.0)	5 (7.5)	1 (7.1)	10 (5.7)	9 (5.8)	8 (5.4)	6 (4.1)	33 (5.3)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2)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8-2〉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47.7%,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37.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잘 모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에 6.9%, '지킬 필요가 없다'에 2.7%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이 53.7%, 2학년이 49.4%, 3학년이 48.6%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4학년은 37.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것은 4학년이 46.6%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우리 대학교 여학생들의 견해도 앞에 〈표 8-1〉과 같이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표 8-2〉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남성의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켜져야 한다	69 (41.1)	30 (52.6)	53 (47.7)	29 (59.2)	12 (44.4)	16 (40.0)	57 (59.4)	27 (40.3)	7 (50.0)	94 (53.7)	77 (49.4)	72 (48.6)	56 (37.8)	299 (47.7)
지킬 필요가 없다	4 (2.4)	1 (1.8)	5 (4.5)		1 (3.7)		1 (1.0)	4 (6.0)	1 (7.1)	7 (4.0)	1 (0.6)	1 (0.7)	8 (5.4)	17 (2.7)
상황에 따라 다르다	71 (42.3)	12 (21.1)	39 (35.1)	14 (28.6)	12 (44.4)	21 (52.5)	35 (36.5)	26 (38.8)	5 (35.7)	56 (32.0)	54 (34.6)	55 (37.2)	69 (46.6)	234 (37.3)
잘 모르겠다	14 (8.3)	6 (10.5)	9 (8.1)	3 (6.1)	1 (3.7)	3 (7.5)	2 (2.1)	5 (7.5)		8 (4.6)	15 (9.6)	11 (7.4)	9 (6.1)	43 (6.9)
무응답	10 (6.0)	8 (14.0)	5 (4.5)	3 (6.1)	1 (3.7)		1 (1.0)	5 (7.5)	1 (7.1)	10 (5.7)	9 (5.8)	9 (6.1)	6 (4.1)	34 (5.4)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3)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대학생들이 갖는 태도에 관한 결과는 〈표 8-3〉과 같다. 이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가 없다'에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30.3%,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26.6%, '사랑에 관계없이 가능하다'에 응답한 경우가 1.1%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성의식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가 없다'에 4학년 학생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1학년생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3학년 여학생이, '사랑에 관계없이 가능하다'에 2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고학년 일수록 개방적이며, 저학년 일수록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8-3〉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혼전 성관계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43 (25.6)	19 (33.3)	31 (27.9)	20 (40.8)	11 (40.7)	12 (30.0)	29 (30.2)	19 (28.4)	6 (42.9)	65 (37.1)	49 (31.4)	42 (28.4)	34 (23.0)	190 (30.3)
사랑하면 문제가 안된다	70 (41.7)	15 (26.3)	35 (31.5)	13 (26.5)	10 (37.0)	20 (50.0)	41 (42.7)	23 (34.3)	3 (21.4)	51 (29.1)	55 (35.3)	56 (37.8)	67 (45.3)	229 (36.5)
사랑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1 (0.6)		1 (0.9)				1 (1.0)	4 (6.0)		2 (1.1)	4 (2.6)		1 (0.7)	7 (1.1)

혼전 성관계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상황에 따라 다르다		45 (26.8)	14 (24.6)	39 (35.1)	13 (26.5)	5 (18.5)	8 (20.0)	25 (26.0)	15 (22.4)	4 (28.6)	48 (27.4)	39 (25.0)	42 (28.4)	38 (25.7)	167 (26.6)
무응답		9 (5.4)	9 (15.8)	5 (4.5)	3 (6.1)	1 (3.7)			6 (9.0)	1 (7.1)	9 (5.1)	9 (5.8)	8 (5.4)	8 (5.4)	34 (5.4)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4) 성관계의 대상범위

성관계의 대상범위는 '사랑하는 사람' 과에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31.7%,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1.6% 순으로 꼭 '배우자' 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이나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과 성관계의 대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살펴볼 때, <표 8-3>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의 반응과 같이 다소 성의식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학년별로도 위 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4> 성관계의 대상범위

(단위 : 명(%))

성관계 대상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배우자		59 (29.8)	12 (21.1)	32 (28.8)	20 (40.8)	12 (44.4)	15 (37.5)	29 (30.2)	22 (32.8)	7 (50.0)	66 (37.7)	43 (27.6)	50 (33.8)	40 (27.0)	199 (31.7)
사랑하는 사람		106 (63.1)	37 (64.9)	69 (62.2)	25 (51.0)	13 (48.1)	23 (57.5)	65 (67.7)	37 (55.2)	7 (50.0)	95 (54.3)	100 (64.1)	86 (58.1)	100 (67.6)	381 (60.8)
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1 (0.6)		3 (2.7)				2 (5.0)	1 (1.0)	3 (4.5)	5 (2.9)	3 (1.9)	1 (0.7)	1 (0.7)	10 (1.6)
무응답		11 (6.5)	8 (14.0)	7 (6.3)	4 (8.2)	2 (7.4)		1 (1.0)	5 (7.5)		9 (5.1)	10 (6.4)	11 (7.4)	7 (4.7)	37 (5.9)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9. 대학에서 성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1)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생이 필요하다(78.0%)고 하였고,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1〉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필요성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예	129 (76.8)	40 (70.2)	87 (78.4)	40 (81.6)	22 (81.5)	36 (90.0)	72 (75.0)	52 (77.6)	11 (78.6)	139 (79.4)	118 (75.6)	107 (72.3)	125 (84.5)	489 (78.0)
아니오	29 (17.3)	9 (15.8)	17 (15.3)	6 (12.2)	4 (14.8)	4 (10.0)	23 (24.0)	10 (14.9)	3 (21.4)	25 (14.3)	30 (19.2)	32 (21.6)	16 (10.8)	103 (16.4)
무응답	10 (6.0)	8 (14.0)	7 (6.3)	3 (6.1)	1 (3.7)		1 (1.0)	5 (7.5)		11 (6.3)	8 (5.1)	9 (6.1)	7 (4.7)	35 (5.6)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2) 대학 성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아래 〈표 9-2〉와 같이, 대학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의 욕구를 알아보았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에 14.7%, '월경, 피임, 사정에 관한 지식' 13.0%,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11.8%, '혼전 성관계' 7.9%,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결혼관' 각 7.8%, '성병 예방'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교육내용들 중에서 1학년생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와 '결혼관'에, 2학년생은 '월경, 피임, 사정에 관한 지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3학년생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4학년생은 '성병 예방'과 '혼전 성관계'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는 〈표 8-1〉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표 8-2〉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 〈표 8-3〉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표 8-4〉 성관계의 대상범위에서 보듯이 4학년 여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생식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남녀의 성차이', '올바른 자위행위', '동성애', '음란물', '이성교제 방법', '성욕 억제방법' 등의 내용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2〉 대학 성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단위 : 명(%))

구분 성교육 내용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생식구조와 임신·출산과정	33 (4.6)	9 (4.1)	18 (4.2)	12 (4.9)	8 (7.1)	11 (5.6)	17 (4.6)	15 (6.0)	2 (3.2)	36 (5.4)	29 (4.9)	32 (5.1)	28 (4.0)	125 (4.8)
월경, 피임, 사정 에 관한 지식	91 (12.8)	32 (14.5)	61 (14.2)	26 (10.7)	23 (20.5)	20 (10.2)	50 (13.4)	28 (11.3)	7 (11.1)	82 (12.4)	86 (14.5)	81 (12.9)	88 (12.4)	337 (13.0)

구분 성교육 내용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녀의 성차이	38 (5.3)	10 (4.5)	25 (5.8)	17 (7.0)	5 (4.5)	13 (6.6)	17 (4.6)	8 (3.2)	2 (3.2)	34 (5.1)	26 (4.4)	41 (6.5)	34 (4.8)	135 (5.2)
올바른 사외행위	18 (2.5)	4 (1.8)	10 (2.3)	10 (4.1)	3 (2.7)	6 (3.0)	12 (3.2)	9 (3.6)	1 (1.6)	16 (2.4)	10 (1.7)	21 (3.3)	26 (3.7)	73 (2.8)
동 성 애	21 (2.9)	8 (3.6)	15 (3.5)	13 (5.3)	2 (1.8)	3 (1.5)	16 (4.3)	9 (3.6)	3 (4.8)	24 (3.6)	21 (3.5)	19 (3.0)	25 (3.5)	89 (3.4)
성 병 예 방	50 (7.0)	14 (6.3)	32 (7.5)	15 (6.1)	7 (6.3)	15 (7.6)	28 (7.5)	17 (6.9)	6 (9.5)	46 (6.9)	44 (7.4)	38 (6.1)	55 (7.8)	183 (7.1)
음 란 물	18 (2.5)	6 (2.7)	11 (2.6)	8 (3.3)	1 (0.9)	4 (2.0)	9 (2.4)	8 (3.2)	1 (1.6)	20 (3.0)	12 (2.0)	16 (2.5)	18 (2.5)	66 (2.5)
성희롱·성폭력 예 방 과 처 리	85 (11.9)	29 (13.1)	47 (11.0)	23 (9.4)	13 (11.6)	22 (11.2)	45 (12.1)	32 (12.9)	9 (14.3)	75 (11.3)	74 (12.4)	78 (12.4)	78 (11.0)	305 (11.8)
성 교육 방 법	51 (7.2)	16 (7.2)	24 (5.6)	17 (7.0)	6 (5.4)	12 (6.1)	16 (4.3)	14 (5.6)	6 (9.5)	43 (6.5)	34 (5.7)	42 (6.7)	42 (5.9)	161 (6.2)
혼 전 성 관 계	56 (7.9)	16 (7.2)	40 (9.3)	16 (6.6)	10 (8.9)	12 (6.1)	31 (8.3)	18 (7.3)	8 (12.7)	52 (7.9)	42 (7.1)	48 (7.6)	64 (9.0)	206 (7.9)
성 에 대 한 올바른 의 식 과 태 도	107 (15.0)	31 (14.0)	64 (14.9)	32 (13.1)	14 (12.5)	31 (15.7)	60 (16.1)	35 (14.1)	7 (11.1)	104 (15.7)	91 (15.3)	83 (13.2)	103 (14.5)	381 (14.7)
성 육 역 세 방 법	29 (4.1)	6 (2.7)	20 (4.7)	11 (4.5)	4 (3.6)	11 (5.6)	16 (4.3)	11 (4.4)	1 (1.6)	26 (3.9)	27 (4.5)	26 (4.1)	30 (4.2)	109 (4.2)
성폭력 피해자의 심 리 처 리	55 (7.7)	14 (6.3)	37 (8.6)	21 (8.6)	7 (6.3)	16 (8.1)	27 (7.3)	19 (7.7)	5 (7.9)	46 (6.9)	49 (8.2)	50 (8.0)	56 (7.9)	201 (7.8)
결 혼 관	57 (8.0)	23 (10.4)	23 (5.4)	19 (7.8)	9 (8.0)	20 (10.2)	25 (6.7)	20 (8.1)	5 (7.9)	54 (8.2)	44 (7.4)	47 (7.5)	56 (7.9)	201 (7.8)
기 타	3 (0.4)	3 (1.4)	2 (0.5)	4 (1.6)		1 (0.5)	3 (0.8)	5 (2.0)		4 (0.6)	6 (1.0)	6 (1.0)	5 (0.7)	21 (0.8)
계	712 (100.0)	221 (100.0)	429 (100.0)	244 (100.0)	112 (100.0)	197 (100.0)	372 (100.0)	248 (100.0)	63 (100.0)	662 (100.0)	595 (100.0)	628 (100.0)	708 (100.0)	2593 (100.0)

3) 대학에서 바람직한 성교육 방법

대학생이 바라는 성교육 방법으로는 '정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응 받을 원하는 학생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 전문가의 초청특강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 26.3%, '학내 상담관련 기관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으로 26.0%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또 한 우리 대학교 상담·봉사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표 9-3〉 대학에서 바람직한 성교육 방법

〈단위 : 명(%)〉

성교육 방법	대 학 별									학 년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규 교양과목 개설하여 교육	67 (39.9)	21 (36.8)	42 (37.8)	16 (32.7)	12 (44.4)	16 (40.0)	36 (37.5)	25 (37.3)	4 (28.6)	65 (37.1)	63 (40.4)	54 (36.5)	56 (37.8)	238 (38.0)
학내 상담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	47 (28.0)	17 (29.8)	26 (23.4)	12 (24.5)	6 (22.2)	7 (17.5)	26 (27.1)	16 (23.9)	7 (50.0)	52 (29.7)	39 (25.0)	36 (24.3)	36 (24.3)	163 (26.0)
외부 전문가의 초청특강	33 (19.6)	11 (19.3)	34 (30.6)	12 (24.5)	7 (25.9)	15 (37.5)	30 (31.3)	20 (29.9)	3 (21.4)	42 (24.0)	40 (25.6)	42 (28.4)	41 (27.7)	165 (26.3)
기 타	5 (3.0)		3 (2.7)	3 (6.1)	1 (3.7)	1 (2.5)	1 (1.0)	1 (1.5)		2 (1.1)	4 (2.6)	5 (3.4)	4 (2.7)	15 (2.4)
무 응 답	16 (9.5)	8 (14.0)	6 (5.4)	6 (12.2)	1 (3.7)	1 (2.5)	3 (3.1)	5 (7.5)		14 (8.0)	10 (6.4)	11 (7.4)	11 (7.4)	46 (7.3)
계	168 (100.0)	57 (100.0)	111 (100.0)	49 (100.0)	27 (100.0)	40 (100.0)	96 (100.0)	67 (100.0)	14 (100.0)	175 (100.0)	156 (100.0)	148 (100.0)	148 (100.0)	627 (100.0)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의식은 어떠하며, 누구로부터 어떤 유형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조사에서는 9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은 조사대상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표본 선정방법은 균등한 표집을 유지하기 위해 학과별 재학생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비율층화무선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였으며, 2001. 5. 1 기준하여 재학 중인 여학생 4,509명의 약 15%인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27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조사대상 여학생의 86.5%의 응답율을 보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학년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경험 유형**을 살펴보면, '불쾌한 음담패설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언어적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신체적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모임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행위', '버스, 극장 등 많은 사람이 모임 장소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응한 627명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1,725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1~3가지 유형의 성적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경우'를 경험한 학생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별로 고학년(3~4학년)과 저학년(1~2)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는 3~4학년에 비해 1~2학년 학생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최초 경험시기**는 '대학 입학 후',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대학입학 전' 보다는 '대학입학 후'에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대학에서의 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원인**에 대한 물음에 '음란성 대중매체의 영향'에 답한 학생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의 허용적인 태도(24.2%)'나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18.0%)', '가부장적인 사회구조(13.4%)', '법적 규제의 미비(7.7%)'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시기**는 '입학 후 1~6개월'이 22.8%, '입학 후 1년 이상' 16.7%, '입학 후 7개월~1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로 보아서는 대학에서의 계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입학 초기부터 이루어져 대학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앞에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시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며,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은 교육의 장으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과나 동아리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삶의 주요한 터전이기도 하므로 대학 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교내·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장소가 어딘인지**에 대한 물음에 '술집, 나이트클럽(26.7%)', 'M.T.장소(10.6%)',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7.4%)', '차안에서(6.3%)', '한적한 곳(6.1%)', '캠퍼스내의 기타 장소나 시설물(5.8%)', '동

아리방'이나 '노래방, 비디오방(각 5.0%)', '커피, 카페, 음식점(4.7%)'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간혹 교내의 '학과·학생회·과방 사무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등에서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적 피해를 경험한 현장을 볼 때, 이성친구와 둘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지만 단 둘이 있을 때, 즉 자취/하숙방이나 한적한 곳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성친구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어쩔 수 없이 단 둘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호젓하고 외딴 곳이나 밀폐된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주변인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에', '술에 만취되어서', '한적한 장소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주변인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에'는 저학년이, '술에 만취되어서'와 '한적한 장소라서'는 고학년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셋째, 대학입학 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학과 친구나 선·후배(32.7%)'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도 25.5%나 되었고, '동아리 친구나 선·후배'라고 응답한 학생도 18.2%나 되었다. 또한 극히 적은 응답율이긴 하지만 '형제, 친척, 직원, 교수, 조교'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까봐'에 1.9%의 반응을 나타난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층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나 선·후배인 '20대(38.0%)'와 '30대(5.3%)'로 나타났으며, '10대(1.6%)', '50대(1.4%)', '60대 이상(0.2%)'도 가해 연령층으로 보아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물음에 '미혼자'에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지 못함' 14.2%, '기혼자'에 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지 못함'에 나타난 반응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마음이 들떠있는 행사(생일파티, 학교 축제, 연말 등)'에 31.9%, '혼자 있을 때'가 14.1%, 'M.T.활동 중에' 12.1%로 학년별로는 저학년 보다 고학년 일수록 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이 불편해질까봐',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봐',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해 할까봐'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인 반응**을 보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냥 웃어 넘겼다'의 경우가 각각 10.8%와 10.7%의 반응이며, '반응을 안보이고 무시했다'가 9.4%, '아무말이나 행동도 못했다'에 4.5% 등 주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며, '저항했다', '타일렀다', '소리를 질렀다', '싫다고 말

했다. '화를 내었다'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11.2%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보인 반응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대학입학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시의 감정과 느낌**은 '불쾌하고 화가 났다'가 34.1%, '더럽게 느껴졌다'고 답한 학생이 4.1%, '두렵고 무서웠다'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의 경우도 1.9%로 성에 대한 여성의 잠재된 피해의식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후유증**으로는 '가해자를 피하게 됐다', '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됐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불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공포감에 시달렸다', '식사나 잠자는 것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 등이 순으로 답하였다.

**다섯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대처한 행동**으로는 '스스로 해결', '친구나 선·후배와와 상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 '애인과 상의', '부모와 상의' 등의 순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까운 주변사람과 상의하여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문적인 상담관련 기관 등에서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에게 알려질까봐 겁이 나거나, 하소연 할 곳이 없거나,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고발센터나 기관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가장 고민했던 점에 대한 반응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후 가장 고민했던 점**에 대한 물음에 '고민하지 않았다', '남에게 알려질까봐 겁이 났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막막했다',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고발센터나 기관이 별로 없어 답답했다', '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나의 미래가 잘못 될 것 같아 불안했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처럼 성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고, 그 파급효과는 일생 동안 지속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속성이 있다. 특히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학교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더 크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학내 전문관련 기관에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업무의 활성화와 화를 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지식을 얻는 곳**으로는 '대중매체(TV, 비디오, PC, 잡지 등)'에서 30.3%, '성교육 특강(23.3%)', '친구나 선·후배(22.6%)', '교사나 교수(9.7%)', '부모(3.5%)', '형제나 친척(2.2%)' 순으로 대체적으로 대중매체, 성교육 특강, 친구나 선배에게서 성 지식을 얻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조적으로 부모, 형제나 친척에게서 성 지식을 얻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즉 부끄럽고 스치스러운 것으로 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더욱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교육은 언제 받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체로 학생들은 응답자의 반 이상이 '초등학교'에서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대학(0.5%)'에서는 거의 성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성지식이 또래에 비해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차 대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입학 후 성에 대한 궁금증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상대로**는 대다수가 '친구, 선·후배'에게 가장 많이 의논하고 있으며, '누구와도 상의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도 12.4%나 응답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나 또래 집단에게서 보여지는 성 지식이 전부인양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제주대 학생들의 성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친구나 선·후배와 상의한다는 것은 어쩌면 은밀한 자신의 성적 문제를 부담 없는 친구와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문인보다 친구들은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담실이 학생들에게 가깝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상담실 자체적으로는 학생들과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일곱째,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46.9%,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39.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잘 모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에 6.2%, '지킬 필요가 없다'에 2.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지켜져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이 52.6%, 3학년이 48.0%, 2학년이 47.4%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4학년은 38.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것은 4학년이 48.0%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순결유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남성의 순결유지에 대한 견해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혼전 성관계에 대해 대학생들이 갖는 태도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가 없다'에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30.3%,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26.6%, '사랑에 관계없이 가능하다'에 응답한 경우가 1.1%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성의식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가 없다'에 4학년 학생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1학년생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 3학년 여학생이, '사랑에 관계없이 가능하다'에 2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고학년 일수록 개방적이며, 저학년 일수록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관계의 대상 범위는** '사랑하는 사람' 과에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31.7%,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1.6% 순으로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과 성관계의 대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살펴볼 때,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의 반응과 같이 다소 성의식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의 욕구**를 알아보았는데,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 '월경, 피임, 사정에 관한 지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혼전 성관계',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결혼관', '성병 예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폭력에 관련한 법이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 피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교육내용들 중에서 1학년생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와 '결혼관'에, 2학년생은 '월경, 피임, 사정에 관한 지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3학년생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4학년생은 '성병 예방'과 '혼전 성관계'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는 여성과 남성의 순결유지 및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성관계의 대상범위에서 보듯이 4학년 여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생식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남녀의 성차이', '올바른 자위행위', '동성애', '음란물', '이성교제 방법', '성욕 억제방법' 등의 내용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성교육에서 보여줬던, 생식기나 성병, 생리현상과 같은 신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성의 심리에 관해서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성교제시 이성의 진심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이성의 생식기 구조나, 성병 그 외의 생리현상 등은 잡지, 인터넷,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로서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성교육은 이성의 심리에 중점을 두어 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방법**으로는 '정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 전문가의 초청특강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 '학내 상담관련 기관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또한 우리 대학교 상담·봉사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끝으로** 학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성지식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성에 대한 문제는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명 개념을 재인식함은 물론 남녀차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성교육과 정신력 지도를 병행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태도를 습득하여 책임있는 사회인으로서 행동하게 해야 할 교육적 접근과 더불어 이를 호소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상담자적 기본 자세, 상담 기법 및 대처요령

등을 직장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습득·지원하는 상담과 지도적 접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며, 교직원, 학생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실천하게 하는 등 개인적 측면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학시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며,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은 교육의 장으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과나 동아리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삶의 주요한 터전이기도 하므로 대학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세진(1997). '성폭력 및 성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인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신은숙 외(1998).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생활연구 제11집,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협의회.
- 현혜순(2000). '우리 사회의 성분화와 성폭력', 학생생활연구 제14집, 동국대학교 학생상담실.
- 강영신 외(1999).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생활연구 제31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필선 외(1995). '성폭력의 행위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폭력인지도와 가해·피해 실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5집,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심영희(2000).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학생생활연구 제27집,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남미애(2000).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제9집, 대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춘실(1998). '교내 여학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9권,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교육원.
- 송만익 외(2000). '대학생의 이성간 폭력에 관한 실태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11집, 대전 산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심의보 외(2000). '충청대 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제8집, 충남대학 학생생활상담실.
- 강영신 외(1999).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생생활연구 제31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명규 외(2000).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 학생생활연구 제32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영환(2000). '교육적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제4집, 경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혜남(1997). '여성의 성 역할과 직무 태도와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순천공업대학 학생생활연구소.
- 김상희(1999). '공주대학생의 성과 사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4집,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현혜순(2000).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3집,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경자 외(1996). '성·사랑·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학생생활연구 제28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성희 외(1999). '대학생의 성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학생상담연구 제1권 제2호, 우석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이연희 외(2000). '서원대생의 성의식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8집,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오수성(1995). '성폭력의 상담사례 및 성폭력 지각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7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은(1997). '성적 괴롭힘 처리절차와 적용', 학생생활연구 제32집,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제한(1999). '청소년의 이성교제 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연구 제25집,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향미(2000). '일부 대학생의 성상담 요구도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5집,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김경희(1994). '여대생의 성의식, 결혼관, 배우자선택,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7집, 목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성수 외(1997).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7, 청소년 대화의 광장.



**<Abstract>**

## **A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on the girl student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Kim, Doo-Hwa · Kim, Kyung-Soon**

This research aims to prepare a chance to be aware of the necessity on right understanding abou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nd right sexual behavior, by examining that how girl students in CNU(Cheju National University) recognized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nd what kind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they experience, and how they respond it and how much they are influenced by it.

A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9 area and 31 items. The subject of study was girl students in CNU and the selecting way was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divided by a fixed rate according to the students by departments in order to keep equal sampling.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bject of 725 persons which is about 15% among 4509 girl students(2001. 5. 1), 627 persons(86.5%) answer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way with SPSS, the data was analyzed by colleges and grades.

The summary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 1. Summary

First, the experience typ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as the verbal behavior, physical behavior and sexual metaphor or evaluation on appearance. The students who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mong 627 persons experienced almost one to three kinds of sexual victim. It showed tha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happened in various ways in our society. Especially verbal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happened generally.

Second, the experience tim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as one to six month after admission to school(22.8%), over one year after admission to school(16.7%), and seven month to one year after admission to school(11.5%). As a result of response, the

sexual education in college is necessary and it should be carried out from the beginning of admission to school. Also it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from happen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campus.

Third, an assailant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as almost 'friends or junior and senior of departments'(32.1%). However, there were 'the unknown(25.5%)' and 'friends or junior and senior of club(18.2%)'. Even though very few response, an assailant was a brother, relative, faculty, professor and teaching assistant(1.9%), which showed the most direct reason experienc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fter admission to school was 'afraid of disadvantage on a position'.

Forth, the situation tha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happen was 'an exhilarating event(birthday party, school festival, the year-end)(31.9%), alone(14.1%), and M.T(12.1%)'. The reason why they did not cope with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as 'don't know how to do', 'afraid of being uncomfortable school life', 'afraid of rather being treated as a strange people' and 'afraid of embarrassing the other if refusing'.

Fifth, the dealing behavior with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as 'the solution by oneself', 'consultation with friends or junior and senior', 'consultation with reliable people', 'consultation with lovers' and 'consultation with parents'. It showed that while they tried to solve it by themselves or consultate with close neighboring people, they were rarely dependent on the center related to professional counsel.

Sixth, the source which students get the information on the sex was 'mass media(TV, video, PC, magazine)(30.3%) and 'a brother or relative(2.2%)'. It showed that they usually get the information from mass media, a lecture of sexual education, and friends or junior and senior. Even though it is natural that they consulted about their own sexual problems with friends not using the counseling center, it causes another problems because friends do not have exact knowledge on the sex. The main reason why they did not use the counseling center was it did not approach closely to the students so that it requires an effort to approach them with close program.

Seventh, as a result of examining attitude for keeping a virgin of a woman, they responded 'must keep it(46.9%)', 'different from situation(39.1%)', 'don't know(6.2%)', and 'don't know how to keep it(2.6%)'.

Eighth, as to the necessity of sexual education in college, most of students answered

'it is necessary'. The contents of sexual education that they wanted was 'right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the sex', 'knowledge on the menses, contraception and ejaculation', 'prevention and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sexual relations before marriage', 'psychological therapy of a victim', 'value of marriage', and 'prevention of venereal disease. Recently with the change of a law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many students have much interest in sexual victim. They want to get systematic education with 'a way through taking regular liberal arts', 'a way through a lecture of a professional', and 'a way through the counseling center in campus.

## 2. Suggestions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epare a way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campus. Escaping from easy thinking 'everyone knows sexual knowledge', counsel that all staffs acquire and support through a workshop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basic attitude of counsel, counsel technique and dealing way should keep pace with leading approach. Along with making and syndicating the guideline for preven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personal aspect in which ethic principle of staffs and students and behavioral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and practiced and institutional aspect should be prepared.